

연별	업체수	연간생산 능력	원목소비량					제재목	
			계	침엽수		활엽수			
				국내	도입	국내	도입	생산량	공급량
1985	10	-	1,496	1,440	55	1	-	917	-
1990	7	-	1,403	598	805	-	-	1,136	-
1994	7	7,060	5,263	2,923	2,340	-	-	4,141	3,962
1997	6	7,650	4,506	1,766	2,740	-	-	3,555	3,568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1971~1998)

연도별 제재공장 및 생산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목을 제재목으로 가공하는 공장의 수가 1970년대 18개 업체에서 1997년에 6개 업체로 계속하여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목소비량과 제재목 생산량은 1994년 이후에 오히려 증가되었다. 1990년 이전에는 주로 국내산 침엽수 및 활엽수를 원목자원으로 이용하였고, 1990년 이후에는 침엽수의 원목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건축용 및 가구용 목재로 이용되었고, 국내산 활엽수 원목은 생산이 중단되었다.

제4절 금강송 육림사업과 유네스코 등재추진⁷

1. 금강송 육림사업

울진군은 전체 면적의 85%가 산림이며, 산림에는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소나무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울진지방 산촌민의 삶과 함께 해 온 나무이다. 땔감에서부터 집을 짓는 목재로, 숭배의 대상으로, 그리고 늘 푸른 기상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그림과 문학 속에 자리를 차지했으며, 물질적 이용과 정신적 숭배의 존재로 산촌민과 함께 서로 상생하며 공존해 왔다.

울진군에는 소나무 중에서 으뜸이며, 세계유일인 “울진금강송” 군락지가 있다. “울진금강송” 소나무 분포현황을 보면 북면 7,570ha, 근남 5,520ha, 서면 4,500ha, 울진읍 3,270ha, 원남 2,270ha 등 23,140ha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평해, 오곡, 온정 백암산 일대, 소태, 선

7. 울진금강송세계유산추진위원회에서 2017년에 발간한 『산촌의 삶과 울진금강송』을 정리하였다.

구, 기성 등에도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 중 중점 분포지역은 금강송면 소광리, 불영사 계곡, 천축산 일대와 북면 구수곡과 응봉산 일대이며, 집단군락지로 소광리 1,610ha, 불영사 계곡 4,648ha가 중점관리로 보호되고 있다,

중점관리 보호지역인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울진군 서면 소광리에 위치하며, 울진군에 속하지만 봉화군과 경계지역에 있으므로 기상여건은 울진군과 봉화군의 중간이다. 울진군과 봉화군의 최근 2000년 이후와 30년간[1981~2010년]의 기상개황을 보면 강수량과 습도 등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평균기온은 울진군이 봉화군보다 3°C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봉화군의 내륙방향에 위치하므로 평균기온이 봉화군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형적 특성은 보호구역 일대의 해발고 500~700m가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며, 30도 이상의 급경사지가 전체 면적의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면방위 구성비는 남향중심[남향, 남동향, 남서향]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양형은 갈색 산림토 계열이 전체면적의 99.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생특성으로 보호구역일대 임상(forest types) 구성비는 활엽수림이 55.1%로 금강소나무림 37.2%, 기타 침엽수림 5.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혼효림은 2.6%로 나타났다.

“울진금강송” 보전노력의 시초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680년 조선 숙종6년의 황장봉산과 금산을 들 수 있다. 황장목 소나무를 금양(禁養)하는 산을 황장산이라 하며, 양질의 소나무를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목재 자원의 확보를 위해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사사로운 사용을 금지한 조치로 봉산으로 정해진 것을 황장봉산(黃腸封山)이라 한다. 울진의 황장봉산의 분포상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속대전』(1746)에 전국 32개 읍 중에서 울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가요람』(1808)에 전국 60처 중 울진의 3처가 포함되어 있고, 『대동지지』(1864)에 전국 41처 중 울진에 1처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에 금산(禁山)을 지정하여 벌목과 방화를 금지하며 매년 봄 치송(禪松)을 식재하거나 종자를 뿌려 배양하고 세초에 식재 파종한 수를 갖추어 계문하되 위반하는 경우 산지기 장 80, 해당 관원 장 60의 형에 처하였다[『경국대전』, 1471]. 조선조 산림정책의 변화로 금산제도가 보완되어 봉산(封山)에 관한 규정이 등장하게 되었다. 『속대전』(1746)에 “각 도의 봉산에서 금송(禁松)을 위반한 자는 중하게 다스린다”라고 나타나 있다.

봉계표석은 숙종 6년(1680)부터 시작된 봉산의 경계를 표시한 표지석으로 울진에는 2개 소가 발견되었다. 먼저 발견된 봉계표석은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입구 도로변 자연 바위석에서 발견된 황장봉계표석이며, 내용은 황장목의 봉계지역을 생달현, 안일왕산, 대리, 당성의 네 지역 주위를 경계로 하였으며, 이 지역을 성(性) 미상의 명길이란 산지기가 책임 관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른 한 곳은 북면 두천리 금강소나무숲길 1구간[두천1리에서 소광2리] 찬물내기 쉼터[소광리]에서 두천 방향으로 100미터 거리 숲길 옆 암벽에서 발견된

황장봉계표석이다. 표석의 내용은 “황장봉산은 동쪽 경계인 조성(鳥城)으로부터 서쪽으로 이십리까지”이다.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보전노력은 근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어 1959년 1월 농림부는 육종림으로 지정하였으며, 1982년 3월 산림청은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였다. 2000년대 들어 금강송 보전 노력이 더욱 구체화되어 2001년 1월 남부지방 산림청은 2,274ha 면적의 산림유전자보호림을 지정하였으며, 2005년에는 산림청이 문화재청과 금강송 보호 및 금강송 휴게숲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남부지방산림청은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지정과 산림유전자보호법을 확대 지정하였으며[2,968ha], 2014년에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나무 중 형질이 우수하여 앞으로 미래 수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목[어미나무]으로 지정 보호·관리하는 나무로 도지사가 지정하고 울진군에서 보호·관리하는 수형목을 지정하였다.

2. 금강송 유네스코 등재 추진

1) 추진위원회 창립과 활동

울진금강송세계유산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2009년 3월 지역인 70명과 출향민 30명 등 100명의 발기인으로 울진문화원 회의실에서 발기인 모임을 개최하였다. 발기인모임에서 추진위 명칭을 ‘울진금강송세계유산등록추진위원회’로 확정했으며, 2017년 그 명칭을 ‘울진금강송세계유산추진위원회’로 간략화했다. “지역의 새 주제로 새 변화를 모색하자”라는 제목으로 채택된 발기문을 통해 위원회는 “울진 금강송은 이미 역사적, 학술적으로 명품소나무임이 입증됐다”며 “기후변화와 솔잎흑파리, 식생경쟁, 산불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울진금강송을 울진의 새로운 가치로 창조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 울진금강송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울진금강송을 육성하여 자손만대 물려줄 자산으로 지켜간다 ▷ 울진금강송 지역의 모든 생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 울진금강송을 미래가치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 울진금강송을 지역의 새 주제로 삼아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간다 등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분위기 조성과 등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울진금강송 알리기 사업과 울진금강송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울진금강송의 가치와 근거를 입증할 작업으로 울진금강송의 가치발굴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먼저 울진금강송 알리기 사업으로 울진금강송의 탁월한 우수성과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홍보하기 위해 울진금강송 알리기 대회 개최와 울진금강송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울진군민의 염원을 담아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돌에 석각해 울진금강송 세계유산 등록 기원탑을 건립하였

다. 그리고 울진금강송 보전활동으로 울진금강송의 무궁한 보전을 위한 군민의식 제고행사로 울진금강송 수호제, 산불예방 캠페인, 재선충병 예방캠페인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금강송 군락지 문화행사로 세계유산등재 자료수집, 경상북도 산림비지니스대회 개최, 금강송 시비와 보호비 제막, 타임캡슐 설치 행사 등을 거행하고 있다.

2) 울진금강송 가치증진 노력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

울진금강송의 이용과 가치증진을 위한 노력의 대표적 사업으로 “울진금강송” 브랜드화 사업과 조례의 제정을 들 수 있다. 브랜드화 사업은 “울진금강송”을 활용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금강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강송 브랜드를 관리·활용하는 것이다. ‘금강송 브랜드’란 울진군이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한 심벌마크를 말하며, 사용대상 품목은 군내에서 생산한 금강송 및 금강송에서 발생된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과 공산품, 그리고 스포츠·관광 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 중에서 군수가 금강송 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한 상품에 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울진군 의회는 ‘울진군 금강송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울진금강송”的 보전과 숲 가꾸기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증진, 금강송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금강송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때 금강송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해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했으며, 금강송보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금강송의 보호육성, 관광자원화, 브랜드 활용관리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연구용역과 국제심포지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출발은 1997년 환경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경북 내륙지역 중심으로 금강소나무 분포 정밀조사였으며, 2000년과 2001년에 이루어진 울진소나무림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으로 분위기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1년 불영사계곡 일대의 산림현황과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우량소나무림 보전대책 수립 기초조사 용역, 2005년 금강소나무림을 활용한 지역발전계획수립 연구, 2007년 울진금강송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화 협신포럼, 2010년 울진 ‘국립금강소나무연구센터’ 건립타당성 조사연구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추진을 본격화 한 것은 2010년 “울진금강송”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이후이다. 조사용역에서 금강송군락지 및 왕피천 유역에 대한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등재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계자연유산 잠재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등재를 위한 단계적 준비를 하였다.

2011년 ‘울진금강송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실시

하였으며, 2012년 이후 매년 울진금강송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울진금강송 숲 해설가 양성 아카데미, 생활속의 울진금강송 교육자료집 발간, 그리고 2013년 세계유산등재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울진금강송 우수성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다. 2014년 이후 각 년도에도 당위성의 전파와 금강송의 우수성을 알리는 각종 행사와 연구가 계속되었으며, 그때까지의 각종 노력들을 모아 2016년 울진금강송 세계유산등재 심포지엄과 세계유산제도와 울진금강송 세계유산등재추진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한편, 2018년에는 울진군을 넘어 강원·경북권 금강송 숲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산림청 주관 '금강송 숲 세계유산등재 준비를 위한 간담회'개최 등으로 울진금강송의 우수성과 가치제고 및 울진금강송 세계유산등재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